

노인가



[해제]

<노인가>는 <박금강금강산유산록>, <계산가> 등과 함께 같은 문헌에 필사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작품의 제작 시기나 작가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인가>는 작품 내용상 단가 <백발가(白髮歌)> 보다는 『교주가곡집(校註歌曲集)』에 실려 있는 <노인가>와 더 많은 유사점이 보인다. <백발가>는 늙음을 한탄하며 젊었을 적 방탕한 생활과 무절제한 생활에 대한 반성과 유교적 교훈이 드러나는 데 반하여, <노인가>에서는 늙음에 대한 큰 한탄보다는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이치로서 늙음을 맞이하는 담담함과 여유로움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노인가>는 젊은 시절에 대한 회한이나 원망 대신, 늙음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신분의 고화와 귀천에 상관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대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시회(詩會)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기고, 비슷하게 늙어가는 벗들과 '작반(作伴)'하여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풍물구경'을 다니는 등 황혼을 즐기는 소박한 노인의 일상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원문]

수양을 치못보와 이니므음 근디업싸
 여보소 벗임네야 이니일 웃씨말소
 명황은 천즈로디 마송의서 우러잇소
 초왕은 명무로디 옥장의 눈물지이
 그박씨 늙은장부 몰홀빅 전이업드
 부상은 초초하야 역여그치 지닌가고
 일월은 무정하야 편시의 초록하이
 청춘의 못질그면 빅발의 득시놀고
 화손의 수돌닥고 금궁물 느저도
 니마음 설른쑥시 근칠줄 전이업싸
 아설라 술부어라 장취불성 후오리라

노인가

천지조는 은물지 역여요 광음조는 빅디지 과격이라 부심이 악몽하이 우흔이 기하오
 공도인조 유빅발은 귀인두상 부증요라
 무정세월 더지업서 영웅호걸 득늑는드
 부귀공명 후직하고 이니몸 썬디업서
 북창청풍의 석침을 도드베고
 춘수잠깐 드러썬이 황조소리 심을씩야
 득시흥안 되조하고 박잔의 술을부어
 반취반성 늙폰노리 연명시를 화답하이
 히황천지 역의로드
 강구의 경양노는 황포고복 한그하고
 위천의 어조수는 창안빅발 확식하드
 사호상산 도라본이 조지연 넓피잇고

벽낙천의 곱피로도 인근七十 고니히라
수역춘디 목슴길러 노즉그좌 잔치홀제
금관조 옥관조올 연치죄초 형비홀제
만반진수 구든곡기 이업서 맛물르고
중빈환화 뉘폰소리 귀먹어 드를소야
일기소연 옛조오디 금일승회 뉘폰잘리에
시불성이면 금곡주벌 호오리다
만좌개왈 낙드후이 더드짓는 글은
육두풍월 객이적고 들은들은 치는복은
늘근그그 고저로드
부로동연 작반후야 호순풍물 귀경그서
동조야 신노와라 손이잡은 청여장은
구분허리 잠싼폐고 붓치달인 명지수건
시은눈 다시도고 만조천홍 살페본이
동각관미 일은봄은 노중간화 히미하고
야은풍임 느진경은 소두낙엽 더욱섭드
삼신스 불노초을 갑슬주고 구할썸디
진황한무 안이사며 신농씨 맛본플른
만병회춘 족커이와 벽발조초 금홀소야
압녹공상 벽두산은 멀리어이 히엿시며
주조천남 노인성은 벨도쏘훈 늑단물그
오름거무 귀공조는 소면풍유 일시로드
당나라 이적선이 털리히여 티벽이며
한느르 디장군은 나이절머 위청인그
고인세게 무삼일노 늘글노자 지엿느고
우순낙조 실러흔들 인근벽발 면홀손야
강호의 벽을쓰의 시음잇고 노조던이
못노라 벽구덜라 년느어이 멀리히여
스름곳치 늘것노요 저벽구 디답후디
우리머리 본디히여 호요세우 곳치저저
십이연파 모옥후이 히고히고 다시히여
얼겁풍싱 늘글손야
벽연못술 인싱들른 부귀후면 욕심이요
빈천후면 근심이르 벽며황 육쥬신세
찬연연 부노히야 만세무궁 후올리르

[현대역]

노인가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라
 부평초 같은 인생 마치 꿈과 같으니 기뻐하는 일 거의 얼마나 될 것인가.
 공도인자 유백발은 귀인이라도 죽으면 밥 한 술 놓이지 않음이라.
 무정한 세월 덧 없어서 영웅호걸 다 늙는다.
 부귀공명과 하직하고 이 내몸 쉴 곳 없어
 북창청풍(北窓淸風)에 석침(石枕)을 베고
 춘수(春睡) 잠깐 들었더니 꾀꼬리 소리에 꿈이 깨어
 다시 붉으스름한 얼굴이 되고 싶어 소박한 잔에 술을 부어
 술이 취한 듯도 하고 깠 듯도 하여 높은 노래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화답하니
 희황천지(羲皇天地) 역의로다.
 강구(康衢)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노인은 함포고복(含哺鼓腹)하며 한가하고
 위수에서 고기를 낚는 늙은이는 쇠한 안색과 하얗게 센 머리털 확실하다.
 상산의 네 명의 늙은이를 돌아 보니 꼬리엔 높이 있고
 백낙천(白樂天)의 백포로다 사람이 칠십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드물었다.
 수역춘대 목숨을 부지하여 (*수역춘대:성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 노인들 자리에 모시고 앉아 잔치할
 때
 금관자(金貫子) 옥관자(玉貫子)를 맨 사람들 나이 따라 술잔을 돌리니
 상 가득히 차린 좋은 음식 굳은 고기 이 없이 맛 모르고
 많은 손님들이 떠드는 높은 소리 귀 먹었으니 들을 수 있으랴.
 일개 소연에 여쭙되 오늘 성대한 잔치 열린 높은 자라에
 시를 짓지 못하면 금곡주벌을 하오리다. (*시불성 금곡주벌:詩不成金谷酒罰, 석송이 금곡원에서 주연
 을 베풀 때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주를 내렸다고 함.)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승낙하니 더디게 짓는 글은
 상스럽게 희롱하는 말을 하는 손님이 적고 드문드문 치는 북은
 늙은이가 부른 가사(歌辭)의 고저(高低)로다.
 부로동연 동무가 되어 호산풍물 구경가서
 어린 아니 신나하고 손에 잡은 청려장(靑藜杖)은
 굽은 허리 잠깐 펴고 부채에 달린 명주 수건
 시린 눈 다시 닦고 온갖 울긋불긋한 꽃을 살펴보니
 동각관매(東閣官梅) 이른 봄은 노중간화 희미하고
 야은풍임 늦은 경치 소두낙엽 더욱 서럽다.
 삼신산 불로초를 값을 치르고 구할진대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가 아니 사며 신농씨(神農氏)가 맛본 풀은
 만병(萬病) 회춘(回春)에 즐거니와 백발조차 막을 수 있겠느냐.

압록강 위에 있는 백두산은 멀리서 어이 힐 것이며,
주조천 남쪽 노인성(老人星)은 별도 또한 늙었다 말인가.
으스대고 거만한 귀공자는 소명풍류 일시로다.
당나라 이적선(李適仙)이 (*이적선:당나라 시인 이태백李太白) 털이 희어서 태백(太白)이며,
한나라 대장군은 나이 젊어 위청(衛靑)인가. (*위청:중국 한나라 무제 때 장수)
사람 세상에 무슨 일로 늙을 노(老)자 만들었는고.
우산낙조(牛山落照)를 싫어한들 인간 백발 면할소냐.
강호에 배를 띄워 시름 잊고 놀자더니
물노라 백구(白鷗)들아 너는 어이 머리 희어
사람같이 늙었느냐. 제 백구 대답하되
우리 머리 본디 희어, 호요세우 같이 젖어
십이연파를 모욕하니, 희고 희고 다시 희어
오랜 세월 풍상(風霜)에 늙을 소냐.
백년도 못 살 인생들은 부귀하면 욕심이요
가난하면 근심이라. 백면황 육주신세
눈부시게 빛나고 늙지 않아 만세무궁(萬世無窮) 하오리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